

과학기술박물관의 본질과 그를 통한 과학기술보급에 대한 리해

주 종 성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데 따라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적극 보급하는것은 나라의 과학기술을 최단기간내에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근로자들의 지식과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주고 시야를 넓혀주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학연구성과를 생산에 받아들이기 위한 국가적인 체계를 바로세우고 과학기술통보사업과 보장사업을 강화하여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을 제때에 생산에 적용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김일성전집》 제72권 293페이지)

지난 시기 도서관을 비롯한 과학기술보급기지들에서 진행하고있는 문헌정보를 통한 과학기술보급에 대한 연구는 많이 논의되었지만 현물정보를 통한 과학기술보급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현물정보를 통한 과학기술보급에서 과학기술박물관이 차지하는 몫은 대단히 크다.

이 글에서는 과학기술박물관의 본질과 기능, 그를 통한 과학기술보급에 대하여 서술하려고 한다.

과학기술박물관은 과학기술과 관련된 현물자료들을 수집하고 보존하며 전시교육하는 종합적인 과학기술지식보급거점이다.

그러므로 과학기술박물관은 과학기술과 관련된 현물자료를 수집하고 정리보존하며 그것을 조사, 연구하고 전시교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모든 박물관활동은 자료수집으로부터 시작되며 그것은 박물관활동의 첫 공정으로 된다. 과학기술박물관의 자료수집은 구입, 기증, 제작, 이관 등 여러가지 형태로 진행되

며 여기서 기본은 계획성, 과학성, 체계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이다.

수집된 과학기술자료들을 과학적으로 분류정리하고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으로 보존하며 자료기지화하는것은 과학기술박물관기능의 중요한 부분이다.

과학기술자료의 보존에서 기본은 자연적 및 인위적인 피해요인을 막는것이며 과학기술자료의 전자화, 다매체화를 실현하여 과학기술자료기지축성사업을 완비하는것이다.

과학기술박물관의 연구기능도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보급에서의 높은 수준을 담보하는 중요기능의 하나이다.

과학기술박물관에서 현물자료들에 대한 부문별, 종류별조사연구를 기본으로 하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추세와 동향 그리고 기업전략, 경영전략과 같은 분석정보, 경쟁정보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하여야 과학기술보급기지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해 나갈수 있다.

현물자료들에 대한 전시와 보급활동은 과학기술박물관의 기본기능으로서 이것은 과학기술박물관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합법칙적요구이다.

과학기술박물관의 보급활동에는 기본전시자료에 대한 해설과 과학기술전람회, 전시회, 과학기술록화물방영, 출판보도물을 통한 보급 등 여러가지가 있으며 컴퓨터망을 통한 과학기술자료기지봉사와 공장, 기업소들의 발전전략과 발전전망 같은것을 알려주는 자문봉사도 포함된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적가치가 있는 물질적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조사연구하며 전시 및 보급활동을 벌리는 상설기관을 가리켜 과학기술박물관이라고 한다.

과학기술박물관은 전시품의 내용과 특성에 따라 종합박물관과 부문별전문박물관으로 분류한다.

종합박물관은 공업, 농업 등 여러 부문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박물관을 말한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는데 따라 과학기술박물관들이 전문화되어나가고있으며 이로부터 부문별전문박물관들이 등장하였다.

부문별박물관에는 취급내용과 목적, 특성에 따라 공업전람관, 농업전람관 등이 있다. 여러가지 명칭의 과학기술전시관, 교육과학전시관 등도 여기에 속한다.

과학기술박물관은 19세기 전반기에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데 따라 출현하였다. 실례로 1799년에 프랑스 빠리에 창설된 과학기술박물관, 1906년에 창립된 도이칠란드 뮌헨의 과학기술박물관을 들수 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두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인류문명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과학기술박물관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토대하여 세계적범위에서 확대발전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발기에 의하여 1956년에 처음으로 중앙 공업 및 농업전람관이 꾸려졌으며 그후 각 도들에 공업, 농업전람관들이 나오게 되었다. 근로자들속에서 과학기술지식보급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1970년대에 지질박물관이 창설되었으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심화발전되면서 중앙 공업 및 농업전람관이 1983년 9월에 3대혁명전시관으로 개편되었다.

한편 1980년대초, 중엽부터는 농업과학원과 과학원에 상설적인 과학전시관이 각각 꾸려지고 김일성종합대학에 창립 50돐을 맞으며 교육과학전시관이 훌륭히 꾸려져 운영되고있다.

종합적인 과학기술보급기지로서의 과학기술박물관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자면 현물전시를 잘 조직하는것과 함께 그를 통한 과학기술보급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

야 한다.

과학기술박물관에서 과학기술보급사업은 자료수집과 조사연구를 통하여 마련된 현물자료, 전시자료를 기본수단으로 하여 과학자, 기술자들과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과 시야를 직관적으로 생동하게 높여주는 창조적인 사업이다.

과학기술박물관에서 전시와 보급은 과학기술보급사업의 두 측면을 이룬다.

진렬전시는 과학기술보급의 목적에 맞게 현물자료를 일정한 체계에 따라 배열하는 사업이다. 여기에는 현물자료와 함께 모조, 모형사관, 사진, 도표, 도해, 음성자료 등 과학적보조자료들도 널리 리용된다.

오늘날에는 국내외의 과학기술발전력사를 보여주는 실물 또는 복제품, 과학기술의 기본원리와 최신발전을 보여주기 위하여 설계제작한 전시물, 보충설명을 위한 화상과 도표도 전시물에 포함시키고있다.

과학기술박물관에서 진렬전시는 언제든 지 와서 참관할수 있는 상설전시장과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조직되는 단기전시회를 위한 립시전시장에서 진행한다.

과학기술보급의 기본수단을 마련하는 진렬전시가 아무리 잘되었다고 하여도 다양한 형식과 방법에 의한 보급활동을 떠나서는 종합적인 과학기술보급기지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다해나갈수 없다.

과학기술박물관의 보급활동형태에는 전시자료에 대한 해설과 함께 과학기술전시회, 과학기술록화물과 출판보도물을 통한 보급, 과학기술자료기지봉사, 과학기술발전추세와 발전전략 등을 알려주는 자문봉사 등이 있다.

우선 전시자료에 대한 해설이 있다.

전시자료에 대한 해설은 과학기술박물관을 통한 과학기술보급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이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해설제강을 잘 작성하는것이다.

해설제강을 높은 정치사상성, 과학성, 통속성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전시자료와 결부시켜 원리적으로 대상의 특성에 맞게 서술하여야 하며 끊임없이 보충완성시켜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해설준비를 잘하고 해설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함으로써 그 수준을 부단히 높여나가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전시회가 있다.

과학기술전시회는 과학기술박물관에서 진행되는 과학기술보급의 중요한 형태이다.

과학기술박물관에서 새로 수집된 과학기술자료를 가지고 과학기술전시회를 조직하면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과학기술지식을 제때에 보급할수 있을뿐아니라 최신과학기술에 대한 세계적발전추세와 동향, 여러 과학기술분야의 발전전략과 발전전망을 알려주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

과학기술전시회는 매 시기 제기되는 당정책과 과학기술사업방향 그리고 력사적인 기념일을 계기로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조직됨으로써 당정책선전과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적극 추동한다.

실례로 3대혁명전시관의 새 기술혁신관에서 해마다 진행되는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를 들수 있다.

과학기술박물관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과학기술교류계획에 의한 전시회도 조직한다.

과학기술박물관에서 진행되는 이러한 과학기술전시회는 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관철에로 근로자들을 고무추동하며 그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이는데 일정하게 기여하게 된다.

또한 과학기술록화물과 출판보도물을 통한 보급이 있다.

과학기술박물관의 전시내용과 관련된 폭넓은 자료를 담은 과학기술록화물은 보급활동의 위력한 수단이다.

과학기술록화물은 과학기술박물관에 대

한 참관에 앞서 방영할수도 있고 끝난 다음에도 방영할수 있으며 중요한 전시물마다 개별적으로 편집하여 방영할수도 있다. 과학기술박물관의 전시내용을 소개하는 록화물은 참관하기 전에 방영하는것이 효과적이다.

출판보도물도 과학기술박물관의 보급활동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되고있다.

과학기술박물관에서 박물관안내서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형식의 과학기술출판물을 편집발행하여 보급하는것은 박물관을 널리 소개선전하고 대중을 과학기술로 무장시키는 힘있는 수단으로 된다.

그러므로 과학기술박물관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다 동원하여 이러한 과학기술출판물들을 다양하게 편집발행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출판보도기관들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과학기술박물관에 전시된 최신성과 자료들을 신문, 방송, TV를 비롯한 대중보도수단들을 통해 소개선전하여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자료기지봉사가 있다.

과학기술자료기지봉사는 과학기술보급망을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과학기술박물관의 과학기술자료기지를 제공하는 보급활동의 한 형태이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수집된 과학기술자료들에 대한 전자화, 다매체화를 하루빨리 실현하며 과학기술보급망을 완비하고 과학기술자료기지를 학술분야별, 인민경제부문별, 주제별 등으로 갈라 구축하여 근로자들이 과학기술박물관에 축적된 현물자료를 비롯한 과학기술자료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게 하는것이다.

또한 자문봉사가 있다.

과학기술박물관에서는 과학기술성과자료들에 대한 보급뿐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추세와 동향, 해당 부문의 발전전략과 발전전망같은것을 알려주는 자문봉사기지로서의 역할도 수행할수 있다. 이러한 봉사는 과학기술지식보급기지로서의

과학기술박물관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하는 보급활동의 중요한 형태라고 말할수 있다.

지난 시기에는 국내에서 개발된 수많은 과학기술성과들을 대량적으로 보급하던 과학기술보급사업이 종전의 방식에서 벗어나 결심채택, 방안선택에 도움을 줄수 있는 분석정보, 경쟁정보형태로 가공, 보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있다.

과학기술박물관에서는 축적된 풍부한 현물자료들, 과학기술보급망과 과학기술전시회, 전람회를 통한 최신과학기술정보수집 등 여러가지 우점들을 리용하여 큰 투자를 하

지 않고도 분석정보, 경쟁정보의 제공과 같은 자문봉사를 진행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다.

과학기술박물관에서는 이러한 우점과 조건을 리용하여 날로 높아가는 과학자, 기술자들과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정보수요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과학기술박물관을 비롯한 과학기술보급기관들에서 과학기술보급사업을 활발히 벌려나는데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全民과학기술인재화 실현에 적극 이바지해나가야 할것이다.